

기본 + 심화	과목명 국어	담당 이윤주 교수님	규범 복습 TEST 2
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문제 1. 밑줄 친 것 중 띄어쓰기를 올바르게 교정하지 않은 것은?

- ① 그가 영국에 간지 5년이다.
→ 그가 영국에 간지 5년이다.
- ② 영수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다.
→ 영수 만큼 성실한 사람이 없다.
- ③ 그 상점에는 책상, 결상등이 있다.
→ 그 상점에는 책상, 결상 등이 있다.
- ④ 어머니는 시장에서 신 두켤레를 사셨다.
→ 어머니는 시장에서 신 두 켤레를 사셨다.

문제 2. 한글 표기법에 어긋남이 없는 것끼리 옳게 짹지어진 것은?

- ① 승낙, 곤란, 예닐곱, 암퇘지
- ② 햇쌀, 접때, 송곳이, 햇콩
- ③ 입때, 대노(大怒), 만란(萬難), 가랑니
- ④ 수탕나귀, 암펄, 볍씨, 살고기

문제 3. <보기>에 제시된 규정을 적용한 단어가 아닌 것은?

<보기>

한글 맞춤법 제29항 끝소리가 ‘ㄹ’인 말과 땀 말이 어울릴 적에 ‘ㄹ’ 소리가 ‘ㄷ’ 소리로 나는 것은 ‘ㄷ’으로 적는다.

- | | |
|-------|-------|
| ① 숟가락 | ② 잔주름 |
| ③ 여닫이 | ④ 이튿날 |

문제 4. 혼동하기 쉬운 단어의 쓰임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- ① 가늠 : 아무것도 가늠하지 않고 선거 운동에 뛰어들다니 어이가 없구나.
가름 : 아내와 남편의 도리가 가름이 있어야 한다.
- ② 갑절 : 값을 갑절로 쳐준다고 해도 선조의 유품을 팔 생각이 없다더군요.
곱절 : 수입이 2년 전에 비해 몇 곱절로 늘어났대요.
- ③ 받치다 : 책받침에 받쳐 글씨를 써야 희미하지 않지.
반히다 : 요즘도 쇠뿔에 받혀서 입원하는 농부도 있니?
밭치다 : 진달래술은 며칠 숙성시킨 다음 체에 밭쳐 걸려 낸 다음 보관해야 한다.
- ④ 웬 : 웬 놈들이 이 밤중까지 골목에서 어슬렁거리지?
왠 : 오늘은 웬 수선들인지 아침부터 집안이 시끌시끌하구먼.

문제 5. 다음 중 표준어로만 짹지어진 것은?

- ① 덩쿨 - 눈두덩이 - 놀이감
- ② 윗어른 - 호루라기 - 딴지
- ③ 계면쩍다 - 지리하다 - 빼지다
- ④ 주책 - 두루뭉술하다 - 허드레

문제 6.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겠다. 그러므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겠다.
- ② 동치미는 있다가 입가심할 때나 먹고 곰국 물을 먼저 떠먹어야지.
- ③ 머리단장을 곱게 하여 옥비녀를 반듯이 찌르고 새옷으로 치례하였다.
- ④ 한길에서 공장 신축장으로 들어가는 언름에 생긴 포장마차가 둘 있었다.

문제 7. 혼동하기 쉬운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한 예로 알맞은 것은?

- ① [둘 사이의 친분이 두껍다.
추워서 옷을 두텁게 입었다.]
- ② [벼가 한창 무성하게 자란다.
그는 한창 나를 노려보더니 돌아서 가 버렸다.]
- ③ [웬 까닭인지 몰라 어리둥절하다.
이야기를 듣자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.]
- ④ [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소리를 질렀다.
내가 아무리 말해도 그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.]

문제 8. 두 어휘가 모두 올바른 표기인 것이 아닌 것은?

- ① 덥수룩하다 - 텁수룩하다
- ② 후덥지근하다 - 후텁지근하다
- ③ 늦장 - 늦장
- ④ 해코지 - 해꼬지

문제 9. 밑줄 친 말의 쓰임이 적절치 못한 것은?

- ① 우리 둘은 친한 친구이긴 하나 서로 성격이 틀려요.
- ② 벼가 활짝 awei 때 농부들은 뿌듯함을 느낀다.
- ③ 무엇을 잘못 먹었는지 저녁 내내 속이 보깨어 혼이 났다.
- ④ 자금이 달려서 사업을 계속하기가 힘들 것 같다.